서효인의 '좌측담장'

우주의 기운을 그대에게

이 글을 송고하고 세 시간 정도가 지나면 한국시리즈 1차전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 원고가 기사가 되어 세상에 나왔을 때에는, 1차전의 결과는 물론이고 게임 분석과 2차전 전망으로 세상이 떠들썩할 것이다. 2009년 이후 8년 만의 한국시리즈다. 전신 해태 시절부터 시작해 타이거즈는 열 차례 한국시리즈에 진출했었고, 모두 승리했다. 승률 100%. 그리고 이제 열한 번째 도전이 시작된다.

이는 열정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기아 팬들에게도 중대한 도전이다. 흔히 '우주의 기운'을 받아 우승을 했다는 2009년 이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암흑기를 맞이한 팬들이다. 이왕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일 팬과 선수는 없을 것이다.

암흑기 때 홀로 팀을 지키던 에이스는 멀쩡하지 않은 몸으로 미국에 진출했다가 실패라는 딱지를 붙이고 돌아왔다. 2009년엔 현역이던 팀의 레전드는 사투리 쓰는 해설위원이 되었다. 무등산을 사랑하는 왼손 에이스는 FA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저 고향이 좋다는 이유로 팀에 눌러앉았다. 울면서 군대에 보냈던 키스톤 콤비는 어느덧 예비역이 되어 다이아몬드 안쪽을 지킨다. 친정 팀에서 자리가 없던 선수들이 트레이드로 이 팀에와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엔트리에 들었든 아니 들었든, 베테랑이든 신인이든, 올드 팬이든 뉴비(new→bie)이든 모두가 승리를 원한다. 이겼으면 좋겠다. 선수들이야 열심히 훈련하고 최선을 다해 플레이를 하면 되겠지만, 나 같은 팬들은 딱히 할 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다만, 행여나 안 좋은 기운이 스밀까 봐, 혹은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려고, 각자가 만든 징크스 속에서 기아의 승리를 발원하는 것이다. 나 역시 그렇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은 2009년에 있었던 일을 반추하며 지냈다.

안 그랬던 해가 있었을까 싶지만, 2009년 또한 정치적으로 극심히 혼란스러운 해였다. 그해 겨울 용산 사태로 철거민과 경찰이 사망했다. 그해 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였다. 2009년에도 북한은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었고, 쌍용자동차 등에서 노동자 탄압이 극심하였다. 그해 여름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였고……. 그리고 그해 가을 기아 타이거즈는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한국시리즈 7차전 끝에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이룬다.

돌이켜 보니, 2009년은 좋은 기운을 얻어 내기에 미안할 만큼 심란한 일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게 아닌가. 최근 가장 주요한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적폐'의 시작이 아마 2009년인가 할 만큼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기였다. 차라리 기아를 도와줄 우주의 기운 같은 게 있었다면 조금 나눠서 우리 사회 전반에 좀 오시지는, '그깟 공놀이가 뭐라고…' 하는 쓸데없는 마음도 슬며시 든다. 이 모든 역사적 사건에 비해, 야구란 것은 얼마나 작은가. 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뉴스가 아닌, 작디작은 나 자신의 2009년도 돌아보았다. 첫 직장에서 수당 없는 야근에 시달렸었다. 심지어 일주일, 열흘 차일피일 밀리는 월급에 애가 타기도 했었다. 골방의 컴퓨터 모니터는 우울한 뉴스를 보고 있는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세상에도, 우리에게도 희망은 없어 보였다.

그해도 물론 야구 경기는 어김없이 매일 저녁 있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가장 많이 이긴 팀이 기아였다. 그 결정타가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이었고 이는 우승 타이틀로 이어졌다. 우주의 기운, 그런 건 잘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야구의 기운이, 기아의 기운이, 나의 일상을 버티게 해 주었다는 점이다.

8년이 지났다. 지금의 우리는 그때의 우리보다 나아졌을까. 누군가는 더 좋은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또 누군가는 하고 싶은 일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누군가는 혐오와 차별에 시달리고, 또 누군가는 삶에 의미를 두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2009년, 그깟 공놀이는 당시의 많은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2009년, 위대한 야구는 수많은 존재에게 잠시라도 큰 위안이 되었다. 상대팀이 이기면 상대팀을 응원하는 사람에게, (내 염원대로) 그 반대의 경우라면 기아를 응원하는 많은 이에게, 올해도 위안이 될 것이다. 또한 야구의 위안으로 우리는 일상을 버티고 살아 낼 것이다. 그것이 야구가 우리에게 주는 '우주의 기운'일지도 모른다.

다시 2009년을 생각한다. 그해는 지금의 K-POP 흥행의 예고라고 할 만큼 대형 히트곡이 쏟아졌던 해이기도 하다. 소녀시대, 빅뱅, 동방신기, 브라운아이드걸스, 백지영, 카라, 비스트 등이 순서를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중 2009년의 기운을 기아에게 불어넣기 위해 꼽은 노래는 세 곡이다. 이 음원을 반복해 듣는 것으로, 팬으로서의 내 할 일을 대신한다.

첫 번째, 2PM의 'Again & Again'. 두 번째, 동방신기의 '주문'(MIROTIC). 세 번째, 브라운아이드걸스의 'Abraca→dabra'.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한국시리즈의 결과가 열한 번째로 이어지기를, 이토록 간절하게, 주문을 걸어 보는 것이다.

의료칼럼

허리 통증 치료 신경 주사는 신경에 놓나요?

임 지 현
첨단우리병원 척추센터 원장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이다. 건물도 그렇고 모든 조직 구조도 마찬가지로, 중심 기둥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과 같은 100세 시대, 허리가 튼튼해야 주위의 도움 없이 잘 걷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은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된다. 젊었을 때 팽팽하고 유연성이 있는 얼굴 피부도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듯, 척추 주위의 근육과 뼈도 약해지고 뼛조각이 생기면서 척추 후방에 있는 신경 공간으로 침범해 결국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을 주게 된다.

척추는 크게 목뼈(경추) 7개, 등뼈(흉추) 12개, 허리뼈(요추) 5개, 그리고 꼬리뼈로 연결돼 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목뼈 하방과, 허리뼈 하방 부위다.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힘을 쓰는 이 부위에서 결국 퇴행성 변화도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되고, 통증이나 불편감도 시작되는 게 일반적이다. 퇴행성 변화 중에서도 환자들에게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는 추간공(위·아래 척추 사이 신경이 나오는 구멍)과 척추관(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 공간)쪽으로 골극(뼛조각)이 생성되면서 결국 신경 압박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척추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협착증의 치료는 사실 신경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눌리는 신경을 해소하는 것으로,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일반적인 초기 증상에서는 1단계로 물리 치료 중에서도 척추 견인 치료를 통해 추간공을 넓혀 신경 압박을 줄이도록 시도하게 되며, 진통 소염제와 근육 이완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1단계 치료에서도 효과가 적은 경우에는 흔히 많은 환자들이 알고 있는 신경 주사(일명, 꼬리뼈 주사)를 투여하는 것을 고려한다. 신경 주사란 신경에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지나는 공간에 약을 주입하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척추 신경관 내에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부신 피질 호르몬제)와 마취제를 직접 뿌려주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압박이 심한 추간공을 실시간 X-ray를 보면서 같은 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마취제 성분의 주사액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신경 주사 요법은 약물의 투여 방법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국소적으로 해당 부위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

다만, 약물의 용량이 제한되므로 단기간 너무 여러 차례 맞으면 호르몬제로 인한 몸에 부작용을 유발해 해롭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주사를 맞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까운 병원에 신뢰가 가는 한 명의 주치의에게 꾸준히 치료받는 것을 권한다.

신경 주사 요법은 다른 한 편으로는 하반신 마취와 비슷하다. 신경 주사의 깊이와 약의 용량이 다른 것이지, 원리와 방법은 같기 때문이다. 무릎이나 발목 수술시 하반신 마취처럼 신경 주사 요법이란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만을 선택적으로 마비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신경주사 요법의 효과는 결국 마취제의 성분이 몸속에서 사라지면서 다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근본적인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자극된 신경 부종(붓기)을 가라앉혀 상대적으로 덜 눌리고 덜 자극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경 주사 요법이 시행되고 나면 수술적 치료까지 하지 않더라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누구나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만큼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척추 건강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잘 쓰기 위해서는 척추 주위 근육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운동도 과유불급이다. 허리에 무리한 하중을 주는 운동이나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해롭다. 예를 들어 직업으로 하는 프로 운동 선수를 보면 단단히 단련된 근력은 좋지만 과사용으로 인해 건염과 관절염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심하고 많은 편이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리 주위 근력을 키우는 등산과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추천한다.

이제는 100세 시대, 나이 들어 주위에 의지하지 않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스스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척추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을 때는 바로 가까운 척추 전문의와 적극적으로 상의해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길 당부 드린다.

기 고

양림동에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까닭은

박 선 정
광주대 겸임교수

10월은 축제의 계절이다. 따사로운 햇살과 살랑대는 가을바람은 축제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좋은 촉매제다.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그 위상을 더욱 확고히 정착시켜가는 충장 축제나 인문학 축제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품격을 더해가는 '굿모닝 양림'이 10월에 열리는 이유도 날씨와 무관치 않다.

그런데 10월 말, 근대 역사문화 마을 양림동에서는 또 하나의 파워풀한 축제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양림 국제재즈 페스티벌'이 그것이다.

아직도 광주에서 재즈는 생소한 장르에 속한다.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나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참여해본 적 있는 재즈 마니아들도 왜 양림동에서 열릴까 하는 의문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재즈의 태동 배경과 정신을 살펴보면 양림동에서 개최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재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음악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많은 애환과 고통을 거쳐 이제는 전 세계 음악인들에 의해 수용되면서 자유와 저항을 상징하는 장르가 되었다. 그러면서 재즈의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해석과 적용, 확장을 통해 열려있는 음악으로 늘 재창조되어 왔다. 재즈 연주자는 연주하고 있는 무대, 그 공간과 순간 속에서 음악적 표현을 만든다. 또한 다른 연주자들과 상호 작용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음악적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창조자들이다.

재즈의 이러한 역사와 포용성은 광주 정신과 많이 닮아 있다. 80년 광주가 추구했던 진정한 민주화와 공동체 정신의 부활은 어떤 지시나 통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들의 열려있는 마음들이 창조한 세계였다.

그러면 양림동은 어떤가? 오늘날 양림동이 광주를 상징하는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 이를테면 1904년부터 양림동에 거주하면서 교육과 의료, 선교 등 근대 문화를 최초로 전파한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의 사랑과 헌신, 섬김의 마음과 그 정신을 잃지 않고 되살리고자 노력해온 순수한 열정들이 살아있었다. 더불어 양림동에 터를 잡고 활동한 예술가들의 창조적 작업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고 있다. 여기에 광주가 낳은 두 명의 대음악가, 현재도 중국 최고 음악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정율성 선생과 비운의 천재 작곡가 정추 선생의 출생지가 모두 양림동이라는 사실도 적지 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음악은 시공을 뛰어넘어 영원한 공감을 주면서 삶의 애환과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해준다. 특히 재즈의 생명력은 공감의 예술이라는 점이다. 과거 LP판을 통해 처음으로 재즈의 세계에 입문한 사람들은 루이 암스트롱이나 빌리 할리데이, 존 콜트레인의 연주를 들으면서 가슴 먹먹해진 경험을 했을 것이다.

곱던 단풍이 낙엽이 되어 아스팔트 위에서 뒹구는 지금, 재즈의 전설들이 만든 음악이 어떻게 후배들에게 재해석되고 확장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면서 새로운 재즈의 진수를 느껴 볼 좋은 찬스다.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양림 국제 재즈 페스티벌 라인업을 보면 쟁쟁한 재즈의 고수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재즈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엘다 장기로프, 알토 색소폰의 살아있는 거장 짐 스니데로, 세계 투어로 재즈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일본의 히로노리 스즈키 쿼텟, 한국의 업 댓 브라운, 오영준 쿼텟, 폴 커비 트리오, 토닉 재즈 오케스트라 등이 광주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 교향악단인 아르스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보컬리스트 고아라의 콜라보 무대가 있으며 엘다 장기로프와 짐 스니데로는 광주 지역의 클래식 및 실용 음악 전공학생들 위해 특별한 마스터 클래스 시간을 갖는다. 3일 동안 양림동 일원에서 펼쳐지는 재즈의 향연은 서로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고받는 시간이다. 그날, 양림동의 가을 밤은 재즈 선율로 더욱 붉게 타오를 것이다.

社 說

영산강환경청 오염 단속 안 하나 못 하나

토양과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가축 분뇨 시설에 대한 단속이 시늉만 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녹조 감시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느슨한 행정이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는 가축 분뇨 처리시설 설치 대상 농가 수는 1만 955개지만,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20개월)까지 고작 79곳(0.7%)만 단속해 전국 평균(1%)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통계상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단속할 경우 약 20%의 농가가 불법 배출로 적발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수 단속을 벌였을 경우 최소 2000건의 적발이 가능했다는 결론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8개 지역 환경청이 항공 녹조(수질)감시를 동일한 업체에 맡겼는데, 감시 방식이 강물 색깔만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감시 결과 내용마저 대동소이하고, 환경 공무원이 동승하지도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예산 낭비만 하는 감시라면 없애는 게 낫다고 질타했다. 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화학사고 사상자(2012년~2017년 5월) 수가 118명으로 7개 환경청 가운데 가장 높다며 관리·감독 부실을 문제 삼았다.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이 1만 곳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매주 한 곳 정도를 단속하는 데 그쳤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이라면 20년을 단속해도 1만 곳은 단 한 번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산강환경청은 가축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상시 단속 계획을 세우는 등 오염원 차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화학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30분 이내에 사고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능 마비 조선대 이사회 정상화 서둘러야

조선대학교 법인 제2기 이사 1명이 추가 사퇴하면서 이사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임기 만료로 8개월째 이사회 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이사들이 잇따라 사퇴함으로써 의사 결정을 위한 정족수(5명)마저 채우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조선대에 따르면 김창훈 개방이사는 지난 20일 알림 마당을 통해 이사직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정원에서 1명 모자란 8명으로 출발한 제2기 이사회는 지난 9월 사퇴한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공석이 됐다. 현재는 강현욱 전 이사장을 포함해 4명만 남게 됐다.

제2기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속 이사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운영권에 대한 구 재단 측과 구성원 간 의견 차이로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된 탓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2기 이사회는 '긴급 사무 처리권'을 앞세워 학사 행정을 추진해 왔지만 이사들의 잇단 사퇴로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됐다.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 부존재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내 혼란은 가중되고 지역 사회에서도 조선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 구성원들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선대 제2기 이사 즉각 사퇴 및 국민 공익형 이사회 실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에 임시 이사 조기 파견을 강하게 촉구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30일 조선대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민립대학으로서 설립 취지를 살리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종료된 2기 이사회는 퇴진하고 민주적 임시이사를 선임해 대학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지역 사회의 중론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여론을 적극 반영해 수습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광주의 도시 정체성

일본의 고도(古都)인 교토(京都) 지역 사람들은 에둘러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직접 표현보다는 간접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다. 같은 일본 사람들조차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라고 한다. 다카하시 노부아키(高橋伸彰) 리츠메이칸(立命館) 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도시 재생을 생각한다' 시리즈 4권 '생활양식과 도시산업'에서 그 독특한 소통법을 소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교토 사람이 함께 식사하다가 '새로운 메뉴로 바꿀 것'을 제안하면 헤어질 시간이 됐다는 신호이며, '편하게 할 것'을 권유하면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배려하거나 대접하려고 한다면 좀 심할 정도로 몇 번이고 사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조금 비싸더라도 단골집을 찾아가고, 이웃과 마당 쓸기를 즐기는 등 과거부터 소중히 여겼던 행위들이 여전히 하나의 문화가 돼 자리하고 있다.

교토는 옛 경관을 그대로 지키며 역사 도시의 명성도 지키고 있다. 교토시와 시민이 아름답고 유구한 경관을 보존해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교토시는 경관 보존이 필요한 고도(高度)지구를 정해 건축물 높이를 10m, 12m, 15m, 20m, 25m, 31m 등 6단계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 시가지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고도지구의 최대 건축물 높이는 과거 45m에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역사경관 보전 수경지구, 일대경관 정비지구 등도 운용하고 있다. 교토시의 경관은 교토 사람의 독특한 정서나 고유한 문화 등과 조화를 이루며 그 도시의 정체성이 됐다.

광주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이며 동시에 문화도시라고들 한다. 광주학생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와 예향의 전통을 지니고 있기에 그렇게들 부른다. 하지만 광주의 경관은 이러한 의미와 표현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말과 글, 관련 시설과 기념물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도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정체성과 일치하는 도시경관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광주시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